

제4차 세계 물 포럼 참가기

4th World Water Forum



최 중 대

(jdchoi@k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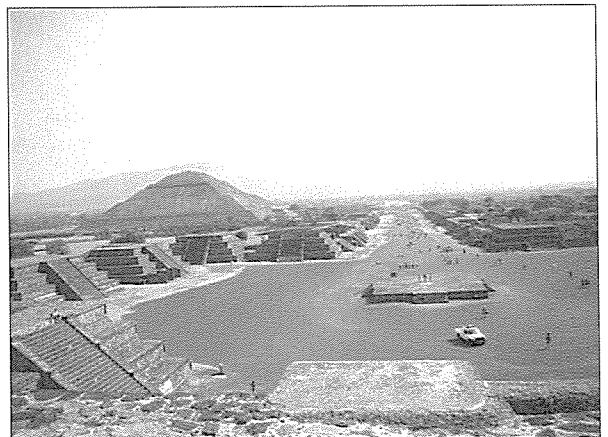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농업공학부 지역기반공학전공 교수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2006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 물 포럼(4th World Water Forum)』에 참석하였다. 포럼의 장소는 우리나라의 코엑스와 같은 Banamex Convention Center이었다. 본 참가기는 세계 물 포럼을 보면서 느낀 점과 멕시코에 대한 인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물 포럼은 물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물 전문가는 물론 정치가, UN 기관, 행정가, 법률가, 민간단체 그리고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 물 포럼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물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 관계가 큰 때문인지 이제는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물 관련 포럼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제 4차 세계 물 포럼에도 120여개 국가에서 1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컸다. 세계 물 포럼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자 많은 국가에서 세계 물 포럼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6차나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유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세계 물포럼에는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기상청, 부산시 등의 정부부처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수

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부산과 대전발전연구원 등 정부투자기관 및 연구소, 한국민간인위원회로 대표된 NGO 그룹, 그리고 소수이지만 기업체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 NGO 대사, 이원형 대전시 자문대사, 이학수 UN ESCAP 사무총장 등 고위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전시장의 홍보부스에서 우리나라의 물 관련 기술, 활동,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황태자를 비롯하여 1,000여명 이상이 전세기까지 동원하여 참석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일본이 두려운 한편, 일본의 협조 없이는 세계 물포럼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세계 물 포럼 참가기

필자는 작년 8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2005 World Water Week에 참석하였다. 스톡홀름 World Water Week도 물과 관련된 매우 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포럼이다. 국제적으로 규모와 권위가 가장 큰 이들 World Water Forum과 World Water Week의 공통점은 순수한 과학연구 중심의 포럼이 아니라 물과 관련된 국제정치 중심의 포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포럼의 중요한 주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관계”, “깨끗한 음용수의 확보와 하수처리수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건강과 안전성 확보”, “식량증산을 통한 기아의 해결을 위한 물의 통합적인 관리와 이용”, “국제하천의 수리권 문제”, “교육과 홍보”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의 종합관리와 오염 총량제, 도시하천의 근자연형 복원과 같은 주제는 포럼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마지못해 일부 다루어지거나 아예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즉, 이들 대형 포럼은 학술단체 중심의 국제학술 회의나 전문가 포럼과는 기본 가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들 포럼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연구 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는 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치성

이 강한 정책개발과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제4차 멕시코 세계 물포럼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개회식과 폐회식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중심이었으며, 중간의 5일은 매일 1개의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들 5개의 주제는 “성장과 개발을 위한 물(Water for growth and development)”, “통합수자원 관리(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물 공급과 위생(Water supply and sanitation for all)”, “식량과 환경을 위한 물 관리(Water management for food and the environment)”,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등이었다. 이들 주제도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결과가 아닌 국가나 국제정치 차원에서 자료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료라기 보다는 정책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또한 제4차 물 포럼에서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5개 지역의 물과 관련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별로 교육과 홍보(Learning center)를 담당하는 세션이 상설되어 있었으며, 또한 물 관련 국가, 기업체, UN 기관, NGO 등의 상설 홍보관이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1만명 이상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참석한 제4차 세계 물포럼을 자국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았다. 멕시코의 불안정한 국내 사정으로 포럼장 입출입시 보안검색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많은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렀다. 그 만큼 사회도 안정되고 발전되어 있을 것으로 상상을 하였다. 그러나 8일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느낀 감정은 사회가 불안정한 나라, 바가지가 심한 나라, 거지가 많은 나라, 운전이 매우 난폭한 나라, 경찰이 많은 나라 등과 같은 비우



호적인 단어들을 연상케 하였다. 물 포럼에 사전 등록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찾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많았다. 정찬용 NGO 대사를 모시고 등록을 도와드린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포럼이 열리는 동일한 장소에 등록창구가 있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의 경우에는 등록장소와 포럼 장소가 달랐다. 나는 내가 등록한 곳에서 고위 정부 인사도 등록을 하는 줄 알고 대사를 모시고 갔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고 한참을 뒤적이고 찾더니 고위급 인사는 등록하는 장소가 다르다.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로 가서 등록을 하는데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사전 등록을 했음에도 이렇게 늦었으니, 현장에서 등록하는 참가자들이 당했을 불편함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폭동까지 유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멕시코의 변방에는 아직도 게릴라가 준동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럼장 출입시에 국제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모든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엑스레이 투과기를 거친 후어나 출입이 가능하였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는 상점 외에 지역주민이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기념품을 사달라고 조르고 또 한편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가격도 흥정하기 나름이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인지 한국말도 곧 잘하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

멕시코의 면적은 2백만 cm^2 로 남한 면적의 20배 이상이며, 인구는 1억 3백만명이다. 그러나 국토의 상당 부분은 사막이라고 한다. 멕시코시티와 주변의 고원지대는 해발 평균 2,240m의 고원지대로 약 5,000 cm^2 의 면적에 2,300만명이 산다고 한다. 관광가이드의 말로는 멕시코시티 1,500 cm^2 의 면적에 1천6백만명이 살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다고 한다. 이 지역은 멕시코 국민 총생산의 약 24%를 생산한다고 한다. 고원지대이어서 그런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아침에 커피가 많이 났다.

멕시코시티 지역은 고대 아즈텍 문명의 발상지로 위대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국민소득은 6~7천달러, 최저 임금은 월 130달러 정도의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에 슬픈 생각이 앞섰다. 멕시코의 최대 산업 중의 하나인 원유 수출이 원유가 인상으로 호황을 맡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주민이 많은 것 같았다. 물값이 우유값과 동일하였으며, 상점은 오후 6시면 거의 문을 닫아 백화점이나 대규모 할인점 등을 둘러보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사회가 불안정해서 인지 시내의 관광버스에도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멕시코의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과 상당히 잘 맞는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나 멕시코는 다르다. 미국과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지만 영어 소통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게릴라의 존재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사회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독자적으로 여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멕시코가 안정적인 사회기반위에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